



2013년 3월 14일

#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CHART OF THE WEEK: 2% 부족한 미국 증시

• 경제분석

선진경제 Chartbook: 체감 경기 개선됐으나 실물 경기는 불안

국내경제 Chartbook: 일평균 수출입 양호했으나 향후 전망은 불투명

• 이머징마켓 동향

통화정책 변화 우려로 5거래일째 약세 지속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우주일렉트로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LG전자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전력·가스, 디스플레이, 대교

• 스몰캡분석

영흥철강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3/06(수)	03/07(목)	03/08(금)	03/11(월)	03/12(화)	03/13(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20.74	2,004.40	2,006.01	2,003.35	1,993.34	1,999.73	
	등락폭	4.13	-16.34	1.61	-2.66	-10.01	6.39	
	등락종목	상승(상한)	417(2)	291(2)	447(5)	277(5)	435(3)	446(5)
		하락(하한)	382(2)	511(0)	344(1)	544(0)	365(4)	352(1)
	ADR	108.12	110.41	110.11	106.82	105.40	108.68	
	이격도	10 일	100.29	99.58	99.70	99.65	99.23	99.55
		20 일	101.66	100.67	100.57	100.26	99.65	99.83
	투자심리	60	50	60	50	50	60	
	거래량 (백만 주)	391	382	307	394	386	349	
	거래대금 (십억 원)	4,044	3,640	3,515	3,760	3,281	3,420	
코스닥	코스닥지수	544.36	541.30	543.10	540.44	543.88	549.73	
	등락폭	0.40	-3.06	1.80	-2.66	3.44	5.85	
	등락종목	상승(상한)	461(13)	338(7)	455(10)	272(9)	582(10)	614(12)
		하락(하한)	462(1)	590(4)	460(0)	672(2)	336(10)	310(4)
	ADR	121.16	122.08	117.71	113.24	113.03	117.90	
	이격도	10 일	102.15	101.27	101.26	100.54	100.86	101.55
		20 일	104.52	103.50	103.45	102.56	102.83	103.49
	투자심리	80	70	80	70	80	80	
	거래량 (백만 주)	481	503	484	513	557	533	
	거래대금 (십억 원)	2,338	2,247	2,093	2,427	2,490	2,582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716.2	918.7	777.3	211.6	105.0	147.7	38.7	37.7	211.6	33.9
	매도	1,649.5	926.4	830.8	259.0	136.1	201.7	37.0	18.9	155.0	39.3
	순매수	<b>66.7</b>	<b>-7.7</b>	<b>-53.5</b>	<b>-47.4</b>	<b>-31.0</b>	<b>-54.1</b>	<b>1.7</b>	<b>18.9</b>	<b>56.6</b>	<b>-5.4</b>
	03월 누계	<b>34.9</b>	<b>175.0</b>	<b>-174.8</b>	<b>102.6</b>	<b>-54.4</b>	<b>-675.6</b>	<b>-20.4</b>	<b>22.3</b>	<b>146.5</b>	<b>-35.1</b>
	13년 누계	-653.7	-145.6	1,163.7	1,036.1	328.3	-1,998.4	-199.0	63.5	1,617.0	-364.4
코스닥	매수	2,341.1	113.4	136.6	33.2	16.0	31.8	8.1	7.5	33.0	19.6
	매도	2,397.9	71.6	118.3	25.2	11.7	28.2	6.7	5.3	38.2	23.0
	순매수	<b>-56.8</b>	<b>41.8</b>	<b>18.3</b>	<b>8.0</b>	<b>4.3</b>	<b>3.6</b>	<b>1.4</b>	<b>2.2</b>	<b>-5.2</b>	<b>-3.4</b>
	03월 누계	<b>-272.8</b>	<b>248.4</b>	<b>57.7</b>	<b>1.0</b>	<b>21.1</b>	<b>-7.2</b>	<b>-5.4</b>	<b>-0.4</b>	<b>22.8</b>	<b>-33.3</b>
	13년 누계	-911.3	549.5	548.8	75.0	49.4	141.0	9.0	-13.8	263.1	-187.0

## CHART OF THE WEEK: 2% 부족한 미국 증시

3월 월간 밴드	1,930-2,050pt
2013년 연간 밴드	1,780-2,400pt
12MF PER	9.5배
12MF PBR	1.04배
Yield Gap	7.9%P

- ▶ 견조한 랠리를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 디커플링 우려가 커지는 코스피와는 대조적
- ▶ 다만 미국 증시는 거래량 감소 중: 변동성 감소, 저금리 기조, 개인투자자 이탈, ETF활성화
- ▶ 개인투자자 동참이 거래량을 증가시킬 것인가: 고점 부담감과 랠리 편승 욕구의 줄타기
- ▶ 랠리에 대한 시장 확신 부족,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는 격언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는 시점

### ■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 미국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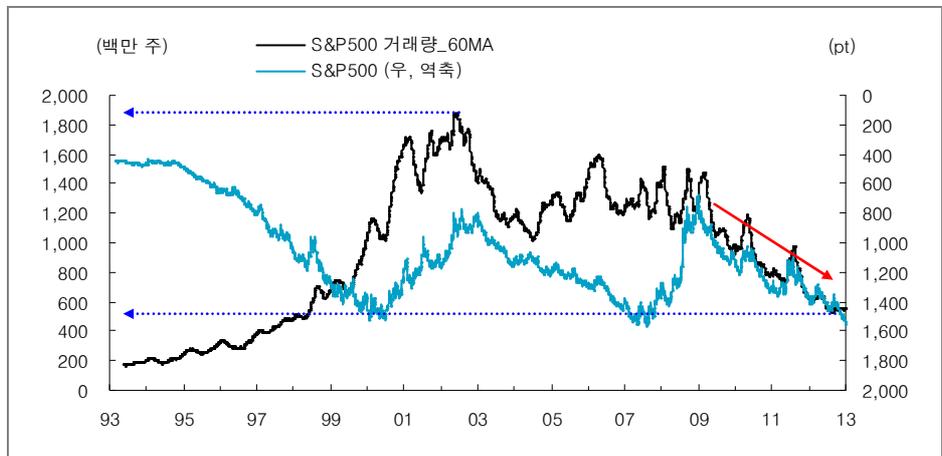
최근 코스피의 박스권 조정 양상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지수는 파죽지세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S&P500은 아직 사상 최고치는 경신하지 못했지만 2007년 고점에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전 고점인 2,050포인트를 뚫지 못하고 있는 한국 증시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며 또 다시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오르고 있는 미국 증시를 보고 있노라면 한편으로는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산재한 주변 이슈에도 불구하고 유독 두드러지는 미국 증시 랠리의 지속가능성이 의심스럽기도 하다. 이 시점에서 최근 미국 증시 상승에 '부족한 2%'에 주목하고자 한다.

### ■ 거래량 상승 없이 오르는 증시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거래량은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2년 최고 18억주에 달했던 S&P500의 거래량(60일 이동평균기준)은 최근 5억주 수준까지 감소했다.

[그림 1] S&P500 및 거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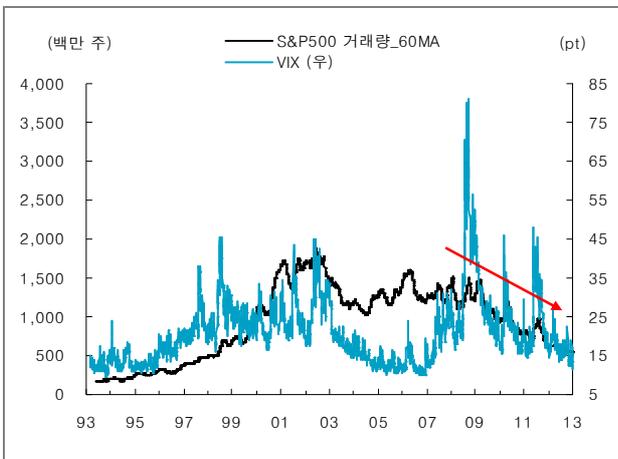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보통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 증시 움직임은 그 만큼 시장 전반에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움직임에 에너지를 싣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세의 견고성 측면에 있어서 다른 에너지가 개입될 경우에 쉬 흔들리 수 있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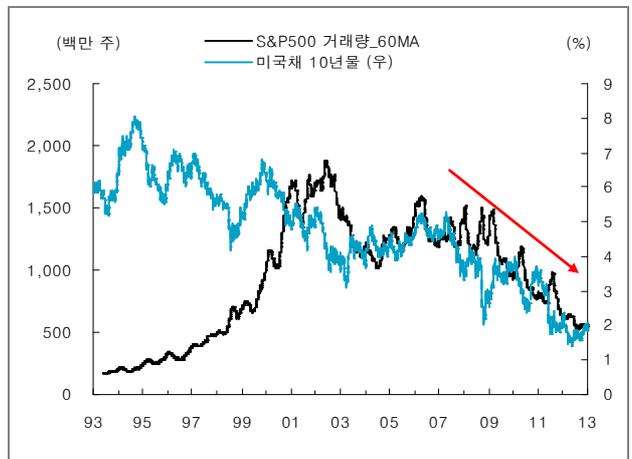
거래량의 감소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기여하고 있다. 증시 변동성 축소로 인해 변동성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초단타 매매 등)의 회전을 감소라던가, 인위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해 주식에 빈번한 매매보다는 채권에 묻어두고 있는 자금이 늘어났다는 점도 있다.

[그림 2] VIX와 S&P500 거래량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 미국채 10년물과 S&P500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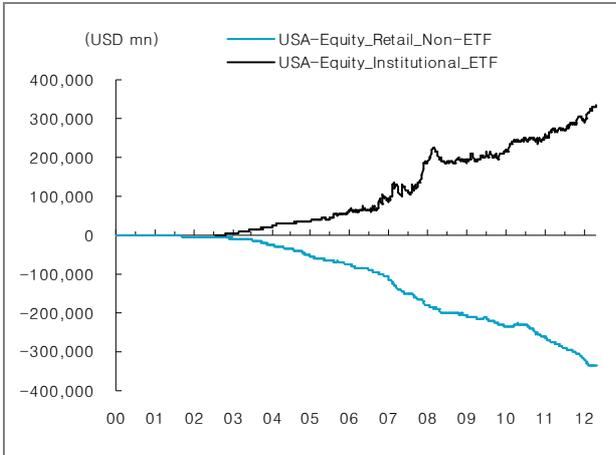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한편 ETF의 증가도 증시 전반의 거래량 감소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편의성과 낮은 수수료를 바탕으로 ETF로의 기관투자자 자금 유입은 빠르게 늘어났다. 반대로 금융위기 속에서 큰 타격을 입은 개인투자자들은 증시에서 빠르게 빠져나왔다(미국은 개인의 직접투자 비중이 낮기 때문에 무추얼펀드[Non-ETF]를 개인투자자의 증시 투자에 대한 proxy로 볼 수 있음). 2008년 10월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한 ‘무이자 예금 무제한 원금보장제(TAG)’도 원금보전이 중요했던 개인투자자들을 무추얼 펀드로부터 이탈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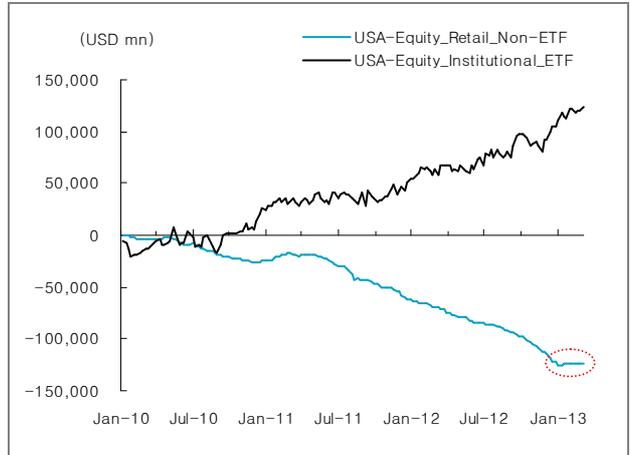
거의 대부분 패시브 형태를 띄고 있는 ETF는 빈번한 매매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 상대적으로 액티브한 무추얼 펀드가 위축되었다는 점도 결국 거래량의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증시의 랠리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은 현재 투자자들이 자산 내에서 또는 자산 간에 있어서 자신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증시 전반에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남아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림 4] 미국 주식형 펀드 중 ETF 및 Non-ETF 자금 유출입 누적 추이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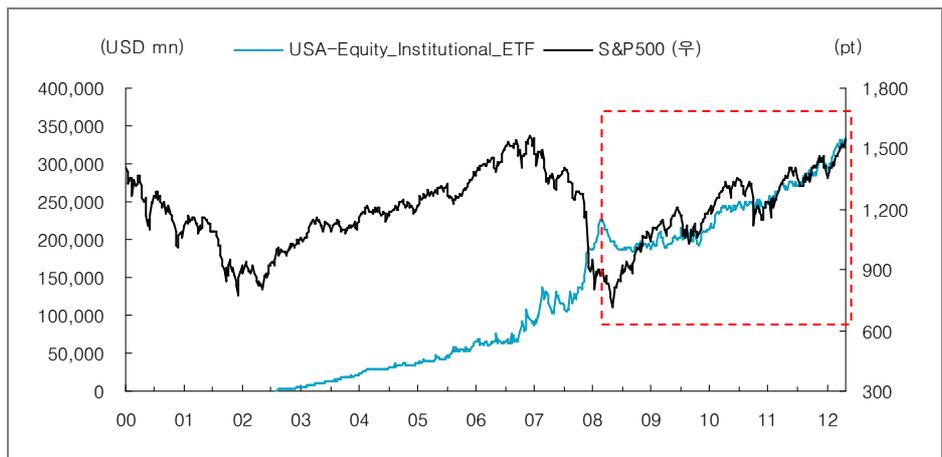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5] 미국 주식형 펀드 중 ETF 및 Non-ETF 자금 유출입 누적 추이 (2010년~)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6] 미국 주식형 펀드 중 ETF 자금 유출입 누적 및 S&P500 추이



주: ETF는 2003.5.28 수치부터 집계  
 자료: EPFR,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렇다면 본격적인 개인투자자의 증시 재진입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다. 최근 추세로 살펴보았을 때 주식형 무추얼펀드(Non-ETF)로의 자금 유출은 2013년 이후로 일 단락 된 모습이다. 만약 개인투자자들의 본격 가세와 함께 거래량이 늘어나면 에너지가 실린 상승이라고 합리화 할 수 있을까.

이를 고민하기 전에, 개인 투자자 및 신규진입을 고려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특히 닷컴 버블 붕괴와 금융위기를 겪어본 투자자라면) ‘고점 매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고, 이들을 랠리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은 예전같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현재 랠리는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시장의 확신이 분명하게 관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은 거래량이 특히 더 감소하는 여름 직전 차익실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시장에서는 역사적 고점이라는 부담감(Fear)과 랠리에 동참하고자 하는 욕구(Greed)가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가운데,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는 증시 격언의 실현 가능성에도 점차 무게가 실릴 수 있는 시점이다.

## 선진경제 Chartbook: 체감 경기 개선됐으나 실물 경기는 불안

- ▶ 미국: 시퀘스터 가동으로 단기적으로 불안한 흐름 보일 수 있으나 부진 폭 제한적일 것
- ▶ 유럽: 이탈리아와 스페인 금융시장 안정, 키프로스 구제금융 지원 임박
- ▶ 일본: 엔화 약세 지속, 자동차와 철강 업종엔 긍정적이나 업종 전반으로 회복 확산 미흡

### ■ 체감 경기 개선 vs. 실물 경기 불안

미국, 유로존, 일본 등 선진국 경기의 서베이 지표들은 모두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심리도 개선됐다. 작년 글로벌 경기 회복을 지연시켰던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 미국 재정지출 감축에 따른 불확실성, 중국 경착륙 가능성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금융시장 여건이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강세를 보였으며, 불안이 제기될 때마다 강세를 보였던 엔화는 일본 정부 노력에 힘입어 약세 기조가 강화됐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4% 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금융시장 안정이 실물경기를 끌어올릴 힘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단기적으로 체감 경기 개선과 실물 경기 부진 사이의 괴리가 빠르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격차가 줄어들려면 유로존과 미국 등에 남아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충분히 해소되어야 한다.

### ■ 미국: 시퀘스터 가동으로 단기적으로 불안한 흐름 보일 수 있으나...

3월 들어 발표된 미국의 2월 지표들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 ISM 지수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부문 모두 예상을 큰 폭 상회했으며 소비심리지수도 반등했다. 서베이 지표들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시퀘스터 관련된 불확실성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퀘스터 리스크가 더 커진 2월과 합의 불발로 가동이 시작된 3월 생산과 수주 등이 부진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 유럽: 이탈리아와 스페인 금융시장 안정, 키프로스 구제금융 지원 임박

지난 한 달 간 유로존 금융시장은 상당히 안정된 흐름을 보여줬다. 2월말 이탈리아 총선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위기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기도 했지만 상승세는 일시적인 데 그쳤다. 3월 중순 열릴 EU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키프로스 구제금융 이슈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유로존 주요국 주가 강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키프로스만 보름새 15% 이상 하락한 것은 외부의 지원 없이 버틸 체력이 바닥났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스 익스포져가 큰 데다 투자가 연간 20% 이상 급감하는 등 키프로스의 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해져 있다. 유로존 체제 유지 차원에서도 한 달 이내 구제금융 지원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 ■ 일본: 엔화 약세의 긍정적 효과는 아직 일부 업종에만 국한

3월 중순 현재 96엔을 상회한 엔달러 환율은, 일본은행이 예정보다 빨리 추가 양적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엔화 약세가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일부에 국한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지출 확대와 양적완화 기조로 시중 통화 공급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기업물가도 반등하기 시작했다. 소비와 기업 투자 여건은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업종별로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향상으로 수혜가 큰 자동차와 철강업종에서 회복 조짐이 두드러진 반면, 이를 제외한 업종에서는 부진이 지속됐다. 수출 호조에 따른 대외 가격 경쟁력은 높아졌지만 글로벌 수요 자체가 약해 엔화 약세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기업들의 투자 재개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 상기 보고서는 2013년 3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 국내경제 Chartbook: 일평균 수출입 양호했으나 향후 전망은 불투명

- ▶ 2월 수출 8.6% YoY 감소. 그러나 설 연휴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2.5% YoY 증가
- ▶ 수출보다 수입이 더 부진. 향후 국내 생산 반등에 어려움 있을 듯
- ▶ BSI 전망은 내수가 계속 부진한 상황임을 시사

### ■ 2월 수출 전년 동월 대비 축소됐으나 일평균 기준으로는 작년 대비 증가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한 423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2월 중 설 연휴로 통관일수가 감소했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2월 일평균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해 조업일수 부족에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무선 통신기기(+10.2%), 석유화학(+7.8%), 액정디바이스(+6.2%) 등이 수출 호조를 이끌었으나 선박(-40.3%), 일반기계(-15.1%), 철강 제품(-10.5%) 등은 부진한 성적을 나타냈다. 20일까지 집계된 지역별 수출은 대EU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0% 급감하며 타 지역보다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고, 엔화 약세 유도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일본으로의 수출도 15.9%나 감소해 엔 약세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 수입 감소 폭 큰 것은 국내 생산이 더디게 회복될 것임을 시사

한편, 2월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0.7% 감소했고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입액은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자본재 수입이 부진해 메모리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수입이 각각 24.1%, 8.3% 급감했다. 동일 품목 수출 역시 2월 중 위축된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문 산업생산이 축소됐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수출이 원자재를 수입해 중간재와 부품을 중국에 납품하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수입 감소는 내수와 더불어 수출 역시 위축될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내 생산활동이 더디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 기업 체감 경기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분야가 더 부정적

BSI(Business Sentiment Index) 전망은 기업체들이 현재 체감하고 있는 경기를 바탕으로 향후 상황을 예상한 지수이다. 100을 기준으로 100 이하는 경기를 부정적으로, 100 이상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2011년부터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100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3월 수치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제조업의 경우 1p 하락한 반면 서비스업은 4p 하락한 것이다. 이는 수출 업체보다 내수 업체가 느끼는 경기가 더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며 작년보다 이어진 내수 부양 기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수가 부진한 상황임을 반증한다.

\* 상기 보고서는 2013년 3월 1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 통화정책 변화 우려로 5거래일째 약세 지속

- ▶ 중국, 통화정책 “안화”에서 “중립”으로 선회 가능성 -UBS
- ▶ 중국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 물가지수는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
- ▶ 중국 철도부, 1~2월 철도 고정자산 투자규모 전년동기대비 25.7% 증가

상해종합지수 5거래일째 하락. 소재, 부동산, 소비재 관련주 약세 주도

###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5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소폭 약세로 개장한 후 장중 낙폭을 확대했다. 거래금액은 776억 위안으로 직전 거래일에 비해 크게 축소됐다. RP발행을 통한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이 물가상승에 대해 언급하고 향후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다. 또한 심천시 정부가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을 제로 수준으로 요구했다는 루머가 제기된 것도 부동산규제에 대한 우려를 부추겼다. 그 외 철도부 폐지로 인해 철도관련 투자 규모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철도운송 관련주가 급락했고 본토 증시 IPO 심사 재개에 대한 불안심리도 지속됐다. 업종별로는 시멘트(-1.9%), 통신장비(-1.7%), 여행(-1.6%), 자동차/부품(-1.5%), 전력(-1.4%), 일반기계(-1.1%), 부동산(-0.9%), 헬스케어(-0.8%), 철강(-0.8%), 섬유/의류(-0.7%), 석탄(-0.3%) 등이 하락했다. 반면 석유/천연가스 관련주는 이틀 연속 급등세를 나타냈고 비철금속, 음식료, 정유/화학주도 강세였다.

### ■ 홍콩 시장

홍콩H지수는 2% 이상 급락해 사흘째 약세를 기록했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이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통화긴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심천시 정부가 올해 신축주택 가격 억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됐다. 그 외 광대은행이 대규모 IPO 계획을 발표해 수급에 대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은행, 보험 등 금융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지수 약세를 주도했고 그 외 전자, 자동차, 통신, 건설, 석탄, SOC, 음식료, 석유/천연가스, 화학, 철강/비철금속 등 대다수 업종이 뚜렷한 약세를 나타냈다.

홍콩H지수 2%대 급락. 금융주 큰 폭 하락, 나머지 업종도 동반 약세

###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3/13(수)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263.97	-0.99	-3.55	-4.30	-0.23
홍콩 H	11,037.41	-2.26	-2.83	-3.50	-3.49
인도 SENSEX	19,457.59	-0.55	1.06	3.16	0.16
러시아 RTS	1,535.88	-0.43	0.82	0.10	0.58
브라질 보베스파	58,208.61	-0.57	4.04	1.37	-4.50
베트남 VN	473.18	-0.45	0.44	-0.29	14.37
MSCI 이머징마켓	1,057.65	-0.56	-0.21	0.29	0.23

주: 13일 오후 5시 40분 기준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며 코스닥은 550P를 목전에 두고 마감

- 미국증시는 최근 상승세에 따른 경계심리가 고조되며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으나, 다우지수가 상승반전에 성공하며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S&P500과 나스닥은 하락하며 혼조세로 마감. 강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을 앞두고 관망세가 팽배한 가운데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 그러나 2,000P 탈환에는 실패. 코스닥은 개인들의 차익실현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매수에 힘입어 1% 이상 강세를 보이며 550P선을 목전에 두고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소속 가수들의 잇따른 해외활동 등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고조된 에스엠이 견조한 오름세를 보였으며, 롯데쇼핑과 합병한 롯데하이마트는 안정화된 영업환경 및 봄철 가전제품 매출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를 나타냄. 무선충전 상용화 기대감에 와이즈파워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였으며, 정부가 화폐개혁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에 전자화폐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채무불이행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 사업의 2대주주로 참여한 롯데관광개발은 하한가를 기록

종목/테마	내 용
<b>에스엠(041510)</b> <b>▶47,250(+6.30%)</b>	<b>실적 개선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b> - 현재 일본에서 소녀시대 아레나 투어가 진행 중이며, 오는 4월 동방신기의 일본 돔 투어 등 소속 가수들의 잇따른 해외 활동 등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 지난 3분기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발표로 시장 신뢰를 상실했었으나, 4분기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 발표 등으로 신뢰성이 회복됐다는 평가
<b>롯데하이마트(071840)</b> <b>▶74,500(+5.52%)</b>	<b>2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 견조한 오름세</b> - 다음달부터 이사 및 결혼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분기 이후 본격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 지난해 불안한 영업환경이 지속되며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및 영업안정화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
<b>무선충전주</b>	<b>무선충전 상용화 기대감에 강세</b> - 무선충전 솔루션 업체인 와이즈파워와 스마트폰 액세서리 업체 다스택이 함께 국내 이통사에 무선 충전기를 납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강세 - 와이즈파워(040670), 다스택(043710, 이상 상한가), 이랜텍(054210, +5.63%), 크로바하이텍(043590, +4.99%), 알에프텍(060104, +4.74%) 등 강세
<b>전자화폐 관련주</b>	<b>화폐개혁 기대감에 강세</b> -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화폐개혁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에 강세. 화폐개혁으로 인한 신종화폐발행과 현금인출기 교체비용 등 수반비용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 한네트(052600, 상한가), 청호컴넷(012600, +12.73%), 한국전자금융(063570, +9.03%), 푸른기술(094940, +6.31%), 바이오스마트(038460, +4.04%)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 유망종목: 우주일렉트로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우주일렉트로 (065680)	26,850 (-2.9)	27,650 (3/05)	- 일본 경쟁업체 대비한 경쟁력 열위를 극복하여 주요 고객 내에서 점유율 확대 추세 - 금년 1분기에는 201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1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전망 IMT(In Mold Technology), FFC(Flexible Flat Cable), 자동차용 커넥터 등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 부각 가능성 상존
기아차 (000270)	52,600 (-4.4)	55,000 (2/26)	- 1월 중국 판매가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1월 세계 시장 점유율도 사상 최고치인 3.9%(전년동월 3.5%)를 달성. 또한 최저 수준의 재고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3월과 5월에 K3와 K7의 미국 판매를 시작으로 신차 모멘텀 기대 - 신모델 출시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감안할 때 환율 안정 시에는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에스엘 (005850)	14,000 (+4.1)	13,450 (2/06)	- A/S부품 비중 상승(에스엘루막스), GM납품 물량 증가(에스엘연대), 제품믹스 개선(에스엘미국) 등으로 지분법 이익 견고. 글로벌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 현대의 중국 3공장과 브라질공장 가동효과, 미국 테네시공장의 램프 생산능력 확장, 동사 램프를 탑재하는 신모델 출시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예상
엠씨넥스 (097520)	14,650 (+82.9)	8,010 (1/31)	- 작년 하반기부터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삼성으로 공급하기 시작, 향후 물량 확대 가능성 상존. 또한 ZTE, 화웨이 등 중국 로컬업체와의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ZTE의 신규 최신행 스마트폰 '그랜드S'에 13M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기 시작하는 등 중국향 매출 신장 기대 -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의 경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 중. 향후 미국 내 자동차 후방카메라 의무장착 법안 추진 시 수혜 예상
에스맥 (097780)	17,000 (+3.0)	16,500 (1/21)	- 각종 IT기기에 적용이 되는 입력모듈(Key Module, Touch Screen Module 등)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로, 태블릿 PC 시장 성장과 삼성전자 내 점유율 확대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전망 - 터치패널용 핵심부품인 ITO 센서 라인을 증설하여 2013년 상반기 내에는 내재화 비율 100%를 달성할 전망. 여타 터치패널 관련주 대비 저평가 매력 상존
LG (003550)	65,900 (-1.6)	67,000 (1/3)	-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던 LG전자가 휴대폰 부분의 실적 개선, OLED TV 출시 등으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며, LG화학도 화학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소재 등으로의 사업다각화를 통해 견조한 수익성 유지하고 있음 -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세를 감안하면 NAV 대비 할인율이 50%에 달하는 저평가 매력이 재부각될 가능성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기아차, LG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에스맥 발행주식의 자기주식취득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중장기 유망종목: LG전자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3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LG전자 (066570)	80,000 (+3.1)	77,600 (2/26)	53,357	1,562	1,116	6,197	12.9
- 2012년 휴대폰 부문의 흑자 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 및 ASP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 가전, TV, 에어컨 부문의 견고한 경쟁력을 감안할 때 글로벌 Peer그룹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SK이노베이션 (096770)	169,000 (-0.9)	170,500 (2/06)	67,991	2,326	1,731	18,578	9.1
- 유가 안정과 정제마진 개선, PX/ BTX 등 주요 화학제품 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1분기 실적 개선 예상 - 정유사업의 실적 변동성 축소로 인한 이익 개선과 석유개발사업은 안정적인 이익 규모를 유지할 전망							
대덕GDS (004130)	18,800 (+2.7)	18,300 (1/21)	578	58	49	2,156	8.7
- 모바일기기에 고화소 카메라 모듈 탑재 확대는 주력제품인 Rigid Flexible (R/F) FPCB 판매 호조를 견인할 전망 - FPCB와 모바일 메인보드용 HDI 매출비중이 2012년 55%에서 2013년 63%까지 확대되며, 가전에 탑재되는 범용 PCB 제품 비중이 축소되는 대신, 직하형 LED TV에 탑재되는 고부가가치 LED BAR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사업부의 제품 mix 개선에 따른 이익률 개선 기대							
농심 (004370)	287,500 (+5.7)	272,000 (1/3)	2,148	133	128	22,127	13.0
- 삼다수사업 철수, 벤조피렌 이슈 등으로 주가 부진했으나, 자체 브랜드 '백산수' 런칭과 프리미엄 신제품 (블랙신컵 및 신라면블랙) 판매 호조, 수출 증가 등을 주목할 필요 - 라면시장 점유율 회복, 경쟁구도 안정화, 제품라인업 강화, 기저효과 등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삼성전자 (005930)	1,527,000 (-3.1)	1,576,000 (1/2)	230,152	34,702	27,841	184,578	8.3
- 갤럭시S3의 판매 호조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 증가 및 이익률 상승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 휴대폰 부문의 캐시카우 역할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 본격화로 2013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NHN (035420)	264,500 (+16.3)	227,500 (1/2)	2,694	779	580	13,205	20.0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높은 검색 점유율 유지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 '라인(LINE)'의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중장기 성장원 확보 - 워닝일레븐 온라인 등 신규 대작 게임들의 출시로 웹보드게임 부진을 만회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NHN, SK이노베이션, LG전자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전력·가스: 배당정책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 ■ 배당에 대한 관심 높아져

유틸리티업체의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장회사는 배당을 한번 늘이면 다시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추세적으로 늘어날 때 주당 배당금(이하 DPS)을 조금씩 늘리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 유틸리티업체들도 그래왔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의 추세를 보면 업체별로 다른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배당의 방향 및 DPS를 예상해볼 수 있게 됐다. 대다수 유틸리티 업체들의 올해 순이익이 전년대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DPS도 전년 수준 또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며, 현재 주가기준으로 배당수익률이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업체들도 많아 저금리시대에 투자대안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 ■ 가스공사, 난방공사, 한국전력의 배당은 정부가 결정

배당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대주주의 의사를 반영해 DPS를 조정하거나 배당성향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 속속 확정 발표되고 있는 배당정책 중 난방공사의 배당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난방공사의 DPS는 전년대비 무려 11배나 늘어났다(표 2). 현금배당 결정을 공시한 2월 26일 주가 기준으로 배당수익률이 4.6%(공식 시가배당률은 5.1%) 높다 보니, 배당 발표 이후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주가가 12%나 올랐다. 1년 만에 배당이 급증한 이유는 정부가 대주주인 회사의 배당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전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회사의 이익 규모나 투자계획에 관계 없이 전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요구하다 보니 순이익이 1년 만에 9.8배 늘어난 난방공사의 배당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가스공사도 같은 경우다. 가스공사는 미수금도 많고 투자부담도 큰데 DPS가 2.2배 늘어났다. 12년 순이익이 2.4배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전KPS, 한전기술의 배당은 한국전력이 결정

한전KPS와 한전기술의 배당은 대주주인 한국전력이 결정한다. 11년에는 한전이 양 사의 배당성향을 70%로 높인 바 있다. 한전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다. 12년에도 같은 배당성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배당률이 너무 높다는 한전 신임 대표이사의 판단에 따라 배당성향이 55%로 하향조정 되면서 DPS도 내려갔다. 올해 이익에 대한 배당성향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 시점에서는 전년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 도시가스 업체의 배당은 크게 변하지 않아

민간이 대주주인 도시가스 업체의 배당은 배당성향 보다는 단순히 DPS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결정되는 느낌이다(표 3). 이는 이익이 급증해도 배당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상장 8개 도시가스 업체 중 삼천리, 서울가스, 경남에너지, 부산가스, 인천도시가스 등 5개의 업체가 전년과 같은 금액의 배당을 발표했다.

### ■ 유틸리티 공기업 배당수익률은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순으로 높아

유틸리티 공기업 중에서는 지역난방공사의 배당수익률이 4.2%로 가장 높고 KPS(3.2%)가 뒤를 잇는다. 도시가스회사 중에서는 인천도시가스(5.5%), 대성에너지(4.9%), 예스코(4.4%) 순으로 배당수익률이 높지만 시가총액이 작고 주식의 유동성이 낮아 기관투자자가 매매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 Top pick은 가스공사

우리는 가스공사, 한전, 한전KPS를 매수 추천하고 있으며 top pick은 가스공사다. 요금기저(설비자산+투자자산)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 정부가 보장해주는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며, 이러한 전망을 신뢰할 수 있는데다, 해외 자원개발 성과도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난방공사는 깜작 고배당으로 주가가 단기에 급등한데다 올해 이익 규모가 전년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주가의 추가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3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디스플레이: 삼성의 OLED투자 - 5.5세대 증설은 구체화, 8세대는 아직 불확실

### ■ 삼성디스플레이의 5.5세대 증설은 좀 더 구체화되는 단계로 파악

A2E P1 이후 삼성디스플레이의 5.5세대 OLED라인 추가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최근 장비업체 탐방 결과에 따르면 증설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정확한 장비발주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상반기 중 기존 라인 보완투자나 A2E 증설 등의 형태로 5.5세대 OLED라인의 설비투자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당초 삼성의 5.5세대 OLED라인 증설 시기를 하반기로 예상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스마트폰 판매와 OLED채택 비중의 상승 가능성, 디스플레이 대형화로 인한 4세대 A1라인의 효율성 저하 등으로 5.5세대 증설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 ■ 삼성의 8세대 OLED투자 전망은 아직 불확실

LG디스플레이가 지난 2월 18일 8세대 OLED설비투자 계획을 확정 지은 후 삼성의 8세대 OLED설비투자나 기술변경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아직 삼성의 8세대 설비투자 전망은 불확실하다. 현재 상황으로는 기존의 기술방식(LTPS+RGB증착)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새로운 기술방식(White OLED)의 도입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삼성의 8세대 양산라인 투자 의사결정 시기는 빨라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 ■ 샤프 지분투자와 Oxide기술 채택 가능성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

삼성의 샤프 지분투자를 두고 삼성이 기존의 LTPS방식 대신 샤프의 Oxide TFT기술을 대형 OLED에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삼성의 지분투자 금액(104억엔)과 확보한 지분율(3.04%)이 Oxide기술 이전대가로 보기에는 너무 작고, 샤프의 기존 주주들과의 이해관계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의 샤프 지분 투자는 대형 LCD TV시장 수요를 대비한 패널확보가 가장 큰 이유로 판단된다.

### ■ OLED장비업체 선호 지속, 비아트론 최선호주 유지

2012년 12월 A2E 장비발주 이후 OLED장비업체들의 주가는 평균 34% 상승했다. 2011년 이후 삼성디스플레이의 장비발주 시점과 OLED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의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부터 새로운 장비발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OLED관련주의 주가조정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의 가능성이 높지만, 2013년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OLED설비투자 모멘텀이 5.5세대와 8세대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장비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OLED관련업체 중 1분기말~2분기초 BOE로부터 장비수주 가능성이 높고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비아트론을 최선호주로 유지한다. 장비발주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은 삼성의 OLED관련주 중에는 에스에프에이를 최선호주로 추천한다. 커버리지 종목은 아니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AP시스템도 긍정적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3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대교(019680)

<b>매수(상향)</b>
목표가: 8,300원
종가(3/12): 6,680원

## 교육의 일인자, 필수 소비재와 배당주 매력 돋보일 시점

### ■ 투자 의견 ‘매수’ 상향, 목표주가 8,300원 제시

대교에 대해 투자 의견을 ‘매수’ 로 상향하고 목표주가 8,300원 (2013F PER 13.3배) 을 제시한다. 목표 PER 13.3 배는 당사의 필수소비재 Universe PER 19.1배 대비 30% 할인해 산출되었고 상승 여력은 24%이다. 주력인 유.초등 학습지에서 약 37%대의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이 돋보이고 학습지 부문 Capex 완료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성장 사업부 턴어라운드 가 기대된다. 보유한 현금성 자산 (1,707억원) 과 신한지주 (399만주, 1,648억원) 가치가 현재 시가 총액의 60%이며 PBR 0.9배의 안정적인 필수 소비재이다. 금년 배당 수익률이 3.9%로 초저금리 시기에 배당 메리트도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좋아지는 일만 남았다. 학습지 Capex 정점 지났고 적자 사업부 턴어라운드

2013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4% 급증한 580억원으로 2012년 부진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2012년 저조한 수익성은 학습지 사업에서 학령 인구수 감소로 인한 회원수 감소와 러닝센터 도입에 따른 고정비 부담, 그리고 성장 사업인 소빅스 (전집,컨텐츠)에서 무형자산 상각 기준 변경 (4년→2년)과 개발비 조기 상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학습지 부문은 러닝센터 도입에 따른 Capex가 정점을 지나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고 비효율 조직 구조 조정에 힘입어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하반기와 2014년에는 감가상각비가 축소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한층 가시화될 것이다. 소빅스 사업에서도 2012년 비용 인식에 따라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 ■ 2013 이후 다양한 Catalyst: 학습지 단가 인상, 자회사 통한 유아동 및 해외 사업

3년마다 단행한 학습지 단가 인상이 2007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고 32,000원에 유지되고 있다. 최근 경쟁사에서의 단가 인상 (3.3%)과 동사의 러닝 센터 도입으로 인해 강화된 경쟁력을 감안할 때 2014년에는 단가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론적으로 단가가 1,000원 인상 시 영업이익이 약 200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현재 별도 기준에 반영되지 않는 자회사 매출액이 2012년 기준 1,098억원에 달했다. 자회사를 통한 방과후 학교, 유.아동 관련 사업 및 해외 사업이 진행형이다. 그 외 교과서 및 컨텐츠 관련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 현재 이익에는 기여하지 못하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이다.

### ■ 자산 가치와 초저금리 시기에 배당 매력 부각 예상

보유한 현금성 자산 (1,707억원) 과 신한지주 (399만주, 1,648억원) 가치가 현재 시가총액의 60%이며 2013F PBR 이 0.9배로 자산 가치가 돋보인다. 또한, 금년 배당 수익률이 3.9%로 초 저금리 시기에 배당 메리트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교 우선주 예상 배당 수익률은 7.3%으로 우선주도 주목할 만하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792	64	72	49	527	(11.4)	108	11.4	3.4	0.9	7.7
2011A	818	60	81	53	562	6.6	106	11.1	3.5	0.9	8.0
2012F	772	37	53	31	333	(40.7)	72	19.1	5.1	0.9	4.9
2013F	789	58	77	59	628	88.5	84	10.6	4.4	0.9	8.7
2014F	837	70	91	69	734	17.0	98	9.1	3.4	0.9	9.6

\*상기 보고서는 2013년 3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영흥철강(012160)

종가(3/13): 1,705원

## 기다려왔던 상승 동력들의 점진적 가시화 전망

### ■ 와이어로프, PC강연선 등 경강선재 가공업체

영흥철강은 1977년 설립된 경강선재 가공업체로 2010년 KOSPI에 상장됐다. 주력 제품은 철강 선재(Wire Rod)를 가공하여 만드는 와이어로프, PC강연선, 마봉강 등이며, 매출 구성은 와이어로프/경강선 등이 약 40%, PC강연선/PC 강봉 등이 약 30%, 마봉강 튜가 약 30%이다. 전방산업은 조선, 자동차, 건설 등으로 다양하며, 수출 비중은 약 35%로 추정된다. 동사는 2011년 KISCO홀딩스 계열에서 분리됐으며, 현재는 자동차용 코일 전문 생산업체인 삼목강업(지분율 100%) 외에 3개의 생산공장(국내 1, 해외 2개) 등을 보유하고 있다.

### ■ 투자 포인트: 1) 자산가치, 2) 본업 턴어라운드, 3) 자회사 삼목강업 IPO 이슈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우량한 자산가치, 2) 본업의 점진적인 턴어라운드, 3) 자회사 삼목강업의 IPO 이슈 등이다. 먼저, 동사는 경남 창원 본사부지(33,871평, 111,969㎡) 자산가치 만으로도 현재 시가총액인 933억원(3/11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사는 최근 충남 보령 삼목강업 인근에 Capa 증설 등을 위해 65,780평 규모의 토지를 신규 취득했으며, 이후 경남 창원 부지는 매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고가의 원재료(Wire Rod) 반영으로 인해 악화됐던 실적도 11월부터 안정화됨에 따라 올해는 본업인 선재업 부문에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더불어, 자회사 삼목강업의 IPO 이슈도 기대된다. 삼목강업은 차량용 코일 생산업체(M/S 20%)로, 차량 경량화 추세에 맞춰 냉간 코일 부문의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 삼목강업은 3월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4월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공모 후 예상 시총은 300~350억원대이다. 삼목강업의 상장 이후 동사는 냉간 코일의 원료인 고부가가치 IT Wire를 생산하여 수직계열화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중장기적인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 ■ 2013년 실적: 매출액 2,100억원(+6.1% YoY), 영업이익 108억원(+191.6% YoY) 전망

2013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100억원(+6.1% YoY), 108억원(+191.6% YoY)이다(IFRS-연결 기준). 동사는 지난해 POSCO의 원재료 덤핑으로 본사 기준, 12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원료 구입처 다변화와 빠른 재고 소진에 따라 월간 기준으로는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흑자 전환 되었으며, 현재 예년 실적을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회사 삼목강업이 예년 수준 이상의 실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올해 실적 개선을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다. 실적 턴어라운드와 더불어 자산가치 현실화, 자회사 삼목강업의 IPO 이슈 등 기다려왔던 이슈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119.3	5.3	7.9	6.1	11	NM	8	82.2	2.7	0.3	3.6
2011A	176.5	10.6	15.3	12.4	220	1,916.2	14	6.0	5.4	0.4	7.2
2012F	198.0	3.7	6.3	4.8	87	(60.4)	8	19.9	13.8	0.5	2.7
2013F	210.0	10.8	14.1	11.0	198	127.2	17	8.5	7.3	0.5	6.0
2012.09A	48.5	0.6	0.9	0.7							
2012.12F	49.1	0.2	2.4	2.4							

주: K-IFRS(연결) 기준 적용

\*상기 보고서는 2013년 3월 1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3/06(수)	03/07(목)	03/08(금)	03/11(월)	03/12(화)	03/13(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20.74	2,004.40	2,006.01	2,003.35	1,993.34	1,999.73	
	등락폭	4.13	-16.34	1.61	-2.66	-10.01	6.39	
	등락종목	상승(상한)	417(2)	291(2)	447(5)	277(5)	435(3)	446(5)
		하락(하한)	382(2)	511(0)	344(1)	544(0)	365(4)	352(1)
	ADR	108.12	110.41	110.11	106.82	105.40	108.68	
	이격도	10 일	100.29	99.58	99.70	99.65	99.23	99.55
		20 일	101.66	100.67	100.57	100.26	99.65	99.83
	투자심리	60	50	60	50	50	60	
	거래량 (백만 주)	391	382	307	394	386	349	
	거래대금 (십억 원)	4,044	3,640	3,515	3,760	3,281	3,420	
코스닥	코스닥지수	544.36	541.30	543.10	540.44	543.88	549.73	
	등락폭	0.40	-3.06	1.80	-2.66	3.44	5.85	
	등락종목	상승(상한)	461(13)	338(7)	455(10)	272(9)	582(10)	614(12)
		하락(하한)	462(1)	590(4)	460(0)	672(2)	336(10)	310(4)
	ADR	121.16	122.08	117.71	113.24	113.03	117.90	
	이격도	10 일	102.15	101.27	101.26	100.54	100.86	101.55
		20 일	104.52	103.50	103.45	102.56	102.83	103.49
	투자심리	80	70	80	70	80	80	
	거래량 (백만 주)	481	503	484	513	557	533	
	거래대금 (십억 원)	2,338	2,247	2,093	2,427	2,490	2,582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716.2	918.7	777.3	211.6	105.0	147.7	38.7	37.7	211.6	33.9
	매도	1,649.5	926.4	830.8	259.0	136.1	201.7	37.0	18.9	155.0	39.3
	순매수	<b>66.7</b>	<b>-7.7</b>	<b>-53.5</b>	<b>-47.4</b>	<b>-31.0</b>	<b>-54.1</b>	<b>1.7</b>	<b>18.9</b>	<b>56.6</b>	<b>-5.4</b>
	03 월 누계	<b>34.9</b>	<b>175.0</b>	<b>-174.8</b>	<b>102.6</b>	<b>-54.4</b>	<b>-675.6</b>	<b>-20.4</b>	<b>22.3</b>	<b>146.5</b>	<b>-35.1</b>
	13 년 누계	-653.7	-145.6	1,163.7	1,036.1	328.3	-1,998.4	-199.0	63.5	1,617.0	-364.4
	코스닥	매수	2,341.1	113.4	136.6	33.2	16.0	31.8	8.1	7.5	33.0
매도		2,397.9	71.6	118.3	25.2	11.7	28.2	6.7	5.3	38.2	23.0
순매수		<b>-56.8</b>	<b>41.8</b>	<b>18.3</b>	<b>8.0</b>	<b>4.3</b>	<b>3.6</b>	<b>1.4</b>	<b>2.2</b>	<b>-5.2</b>	<b>-3.4</b>
03 월 누계		<b>-272.8</b>	<b>248.4</b>	<b>57.7</b>	<b>1.0</b>	<b>21.1</b>	<b>-7.2</b>	<b>-5.4</b>	<b>-0.4</b>	<b>22.8</b>	<b>-33.3</b>
13 년 누계		-911.3	549.5	548.8	75.0	49.4	141.0	9.0	-13.8	263.1	-187.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164	화학	-13,934
제조업	908	서비스업	-9,013
증권	75	운수창고	-6,775
LG전자	15,073	삼성전자	-15,168
KODEX 200	11,518	LG화학	-9,070
LG디스플레이	3,921	CJ CGV	-4,191
KCC	3,779	만도	-3,739
SK하이닉스	2,605	현대건설	-3,694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18,415	건설업	-4,060
전기,전자	17,676	운수창고	-2,784
보험	7,964	의약품	-1,915
삼성전자	17,237	SK하이닉스	-13,123
현대위아	9,796	두산	-3,122
LG전자	7,926	현대건설	-2,482
LG화학	6,824	대한항공	-2,420
삼성생명	4,922	제일기획	-2,410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5,392	보험	-526
서비스업	4,121	기계	-219
운수장비	3,161	비금속광물	-158
삼성전자	3,648	금호석유	-378
KODEX 레버리지	1,374	삼성정밀화학	-365
한국전력	1,277	한화생명	-363
S-Oil	1,085	OCI	-357
SK하이닉스	1,058	하나금융지주	-322

보 협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9,620	화학	-22,372
서비스업	3,871	금융업	-6,315
통신업	3,678	운수장비	-6,123
KODEX 레버리지	15,021	LG화학	-8,443
LG전자	5,656	S-Oil	-7,125
KODEX 200	4,792	우리금융	-6,845
삼성전자	4,339	삼성테크윈	-5,100
CJ CGV	3,113	LG상사	-4,968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25,227	화학	-43,262
보험	6,624	운수창고	-16,904
운수장비	5,147	건설업	-13,369
KODEX 200	30,675	LG화학	-19,355
LG전자	28,869	현대건설	-11,438
현대위아	15,310	삼성물산	-8,249
LG디스플레이	9,806	대한항공	-8,094
현대모비스	7,431	S-Oil	-6,930
삼성전기	5,267	삼성중공업	-6,200
NHN	5,125	OCI	-5,920
한화케미칼	4,914	롯데케미칼	-5,760
KODEX 레버리지	4,493	삼성테크윈	-5,722
유한양행	3,847	POSCO	-5,435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44,163	운수장비	-18,697
유통업	7,427	건설업	-13,731
의약품	5,856	보험	-9,258
삼성전자	34,360	KODEX 200	-29,994
SK하이닉스	12,624	대림산업	-10,721
삼성물산	8,508	삼성전기	-9,998
엔씨소프트	7,212	KB금융	-9,484
삼성전자우	7,161	KODEX 레버리지	-9,349
아모레퍼시픽	4,540	NHN	-7,732
한국가스공사	3,978	삼성중공업	-7,264
한진해운	3,605	현대모비스	-5,550
SK텔레콤	3,507	현대중공업	-4,782
LG	3,075	LG전자	-4,745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1,845	IT부품	-4,039	반도체	2,119	디지털컨텐츠	-2,037
계약	1,518	사업지원	-1,393	의료,정밀기기	822	방송서비스	-1,617
디지털컨텐츠	1,270	방송서비스	-735	도매	814	화학	-1,446
에스엠	1,888	인터플렉스	-1,925	인터파크	1,455	CJ E&M	-2,729
위메이드	1,812	하나투어	-1,135	제이콘텐츠리	1,161	게임빌	-2,435
서울반도체	1,310	덕산하이메탈	-946	원스테크넷	1,120	골프존	-1,874
씨젠	1,039	옵트론텍	-813	포스코엠텍	993	CJ오쇼핑	-1,456
휴비츠	1,027	파트론	-758	아모텍	880	코오롱생명과학	-1,431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1,533	계약	-392	출판,매체복제	1,632	반도체	-1,149
반도체	814	방송서비스	-264	디지털컨텐츠	1,041	소매	-861
화학	491	IT부품	-177	전문기술	827	금융서비스	-331
에스엠	1,533	GS홈쇼핑	-168	에스엠	1,678	실리콘웍스	-1,407
에이블씨엔씨	541	크로바하이텍	-158	루멘스	1,048	파트론	-915
다음	452	메디투스	-158	서원인텍	1,009	서부T&D	-861
포스코엠텍	323	씨젠	-154	위메이드	981	메디포스트	-716
에스비엠	298	원익QnC	-121	CJ E&M	831	서울반도체	-653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8,345	IT부품	-6,983	IT부품	12,824	방송서비스	-2,308
의료,정밀기기	4,811	방송서비스	-2,109	반도체	7,883	인터넷	-2,252
오락,문화	3,563	사업지원	-2,015	출판,매체복제	3,906	화학	-459
에스엠	8,128	인터플렉스	-4,079	파트론	4,689	다음	-2,759
원스테크넷	2,291	실리콘웍스	-2,877	에스엠	3,903	CJ오쇼핑	-2,103
위메이드	2,291	게임빌	-2,865	이엘케이	2,402	이노칩	-1,647
서원인텍	2,217	CJ E&M	-2,400	오스템임플란트	2,130	에이블씨엔씨	-1,020
제이콘텐츠리	1,882	CJ오쇼핑	-2,045	씨젠	2,120	코리아본뱅크	-794
휴비츠	1,868	KH바텍	-1,854	슈프리마	1,983	컴투스	-496
파라다이스	1,779	골프존	-1,799	안랩	1,944	메디포스트	-496
KTH	1,696	SK브로드밴드	-1,708	제이콘텐츠리	1,909	네패스	-391
에스24	1,581	다음	-1,699	덕산하이메탈	1,854	코미팜	-381
세코닉스	1,343	하나투어	-1,685	CJ E&M	1,744	테라젠이텍스	-337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미래에셋증권	20 일	KPX케미칼	20 일
대교	14 일	일성신약	17 일
한일시멘트	12 일	LG패션	17 일
오뚜기	12 일	울촌화학	16 일
삼성전기	12 일	삼영전자	10 일
넥센타이어	11 일	SK텔레콤	10 일
남양유업	11 일	롯데삼강	9 일
대우증권	11 일	일진디스플	8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58 일	평화정공	14 일
서울반도체	8 일	모두투어	10 일
메가스터디	7 일	포스코캠텍	8 일
포스코엠텍	6 일	하나투어	8 일
유진기업	6 일	에스에프에이	7 일
루멘스	6 일	동진세미켄	5 일
차바이오앤	5 일	포스코 ICT	5 일
서부T&D	4 일	시그네텍스	5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LG전자	74,346	SK하이닉스	189,621
LG디스플레이	61,429	호텔신라	26,178
KODEX 인버스	56,841	GKL	22,981
KODEX 200	45,625	SK텔레콤	22,471
KT	38,781	엔씨소프트	19,956
KB금융	37,977	LG생활건강	18,871
현대중공업	32,333	삼성엔지니어링	18,307
KCC	29,077	두산	13,499

KOSDAQ			
기	관	외	국 인
에스엠	11,142	파트론	12,140
파라다이스	10,175	하이록코리아	11,689
에이블씨엔씨	8,086	유진테크	11,559
위메이드	6,920	파라다이스	10,633
원스테크넷	6,186	오스탬임플란트	8,940
메디포스트	4,720	이엘케이	7,355
바텍	4,712	씨젠	6,465
루멘스	4,467	하나투어	6,194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KOSPI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25,227	44,163	69,390				
전기가스업	2,019	444	2,463				
비금속광물	46	294	339				
엔씨소프트	1,237	7,212	8,449				
유한양행	3,847	2,913	6,760				
자화전자	1,190	2,294	3,484				
현대해상	1,336	965	2,302				
스카이라이프	1,600	645	2,245				
기업은행	1,194	1,021	2,215				
롯데쇼핑	1,181	845	2,026				
키움증권	1,385	597	1,982				
LG전자우	791	1,146	1,937				
코스맥스	561	1,007	1,567				

종	KOSDAQ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출판,매체복제	8,345	3,906	12,251				
반도체	2,726	7,883	10,608				
의료,정밀기기	4,811	3,185	7,996				
에스엠	8,128	3,903	12,031				
제이콘텐트리	1,882	1,909	3,791				
위메이드	2,291	870	3,161				
파라다이스	1,779	990	2,769				
서원인텍	2,217	447	2,664				
유원컴텍	705	1,665	2,369				
슈프리마	330	1,983	2,313				
씨젠	122	2,120	2,242				
루멘스	1,235	1,003	2,238				
휴비츠	1,868	153	2,022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TIGER S&P500선물(H)	31 일	화신	22 일	심택	20 일	KCC건설	23 일
현대건설	17 일	에스엘	10 일	덕산하이메탈	15 일	실리콘웍스	23 일
TIGER 금은선물(H)	15 일	금호석유	10 일	우주일렉트로	6 일	톱텍	4 일
대한항공	14 일	대우조선해양	10 일	성광벤드	5 일	유진기업	3 일
TIGER 200	14 일	GS건설	8 일	SK브로드밴드	4 일	서부T&D	2 일
제일기획	10 일	카프로	8 일	CJ오쇼핑	4 일	인터파크	2 일
코오롱인더	10 일	휴켄스	8 일	멜파스	4 일	다음	2 일
KODEX 10년국채선물	10 일	효성	7 일	동양시멘트	3 일	EG	2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193,947	삼성전자	-319,031	인터플렉스	-19,749	다음	-4,634
대한항공	-40,695	KODEX 200	-65,047	SK브로드밴드	-11,808	에이블씨엔씨	-2,629
현대건설	-39,003	현대차	-52,134	덕산하이메탈	-8,852	이노칩	-2,568
현대글로비스	-33,765	KB금융	-50,963	CJ E&M	-6,716	바텍	-1,727
LG화학	-32,860	현대중공업	-37,669	성광벤드	-6,489	실리콘웍스	-1,684
제일모직	-22,727	롯데케미칼	-37,122	CJ오쇼핑	-6,153	동서	-1,292
삼성엔지니어링	-19,373	LG화학	-33,085	모두투어	-5,295	코리아본뱅크	-1,282
삼성중공업	-18,048	기아차	-29,413	옵트론텍	-5,281	인터플렉스	-1,207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화학	-43,262	-5,392	-48,654	방송서비스	-2,109	-2,308	-4,418
건설업	-13,369	-13,731	-27,100	통신서비스	-1,708	-161	-1,869
운수창고	-16,904	-1,771	-18,675	화학	-11	-459	-470
LG화학	-19,355	-4,038	-23,393	다음	-1,699	-2,759	-4,458
삼성중공업	-6,200	-7,264	-13,464	CJ오쇼핑	-2,045	-2,103	-4,148
현대건설	-11,438	-1,906	-13,344	실리콘웍스	-2,877	-197	-3,074
두산인프라코어	-3,770	-3,366	-7,136	이노칩	-116	-1,647	-1,762
롯데케미칼	-5,760	-604	-6,364	에이블씨엔씨	-66	-1,020	-1,086
제일모직	-4,573	-492	-5,064	큐로컴	-514	-189	-703
삼성SDI	-3,004	-1,365	-4,369	성우전자	-534	-53	-587
대우조선해양	-3,828	-423	-4,252	메디포스트	-7	-496	-503
금호석유	-4,200	-18	-4,218	네패스	-109	-391	-500
KODEX 인버스	-1,393	-2,726	-4,119	인포피아	-327	-171	-499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15	23,158	
롯데케미칼	35	7,602	
삼성전기	66	6,249	
LG전자	62	4,906	
POSCO	13	4,241	
호텔신라	69	3,636	
LG디스플레이	109	3,513	
삼성중공업	95	3,486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차바이오텐	317	3,709	
씨젠	32	2,200	
에이블씨엔씨	13	1,038	
세중	124	905	
지엔코	292	799	
인터플렉스	13	561	
플렉스컴	25	540	
메디포스트	5	45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378	5,047,461	
POSCO	9,168	3,094,350	
LG전자	28,348	2,225,280	
OCI	8,030	1,421,380	
현대차	4,625	973,601	
NHN	3,233	845,370	
SK하이닉스	27,473	771,983	
현대모비스	2,359	712,352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7,110	459,416	
서울반도체	5,101	158,133	
에스엠	1,958	87,029	
파라다이스	4,009	84,397	
덕산하이메탈	2,538	65,614	
씨젠	841	58,141	
차바이오텐	4,919	58,045	
파트론	2,199	55,40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전기, 전자	5,624	통신업	-1,786
운수창고	2,448	은행	-1,473
운수장비	1,776	금융업	-873
현대상선	3,870	신한지주	-1,953
SK하이닉스	2,566	외환은행	-1,386
KB금융	1,844	STX팬오션	-1,019
KEC	1,452	한진해운	-1,018
넥센타이어	1,100	KT	-801
STX조선해양	973	LG유플러스	-800
웅진에너지	897	LG디스플레이	-728
두산인프라코어	760	LG	-589
SG세계물산	658	효성	-562
LG전자	655	동국제강	-543

KOSDAQ			
순 증		순 감	
종합건설	2,342	오락, 문화	-240
IT부품	1,594	금융서비스	-175
도매	996	금융	-11
서희건설	1,849	파라다이스	-286
서한	478	하이비전시스템	-175
씨티씨바이오	320	주성엔지니어링	-119
룩손에너지	301	원익IPS	-106
대아티아이	296	덕산하이메탈	-87
인터플렉스	286	이녹스	-81
3S	275	디지텍시스템	-64
티케이케미칼	247	오픈베이스	-63
리노스	244	한글과컴퓨터	-60
플렉스컴	189	위메이드	-5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3/07(목)	03/08(금)	03/11(월)	03/12(화)	03/13(수)
외국인	-145.6	175.0	-361.7	-50.6	-4.2	-208.2	-90.9	-7.7
기관계	1,163.7	-174.8	260.8	-103.5	75.5	378.0	-35.7	-53.5
(투신)	-1,998.4	-675.6	-353.7	-127.9	-54.5	18.1	-135.2	-54.1
(연기금)	1,664.3	138.4	139.2	16.9	22.8	17.4	25.6	56.4
(은행)	63.5	22.3	61.9	1.2	-6.4	21.9	26.3	18.9
(보험)	328.3	-54.4	-27.3	12.5	16.0	-5.6	-19.2	-31.0
개인	-653.7	34.9	102.2	149.2	-72.1	-164.8	123.3	66.7
기타	-364.4	-35.1	-1.3	4.9	0.9	-5.0	3.3	-5.4

주: KOSDAQ 제외

##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03/06(수)	03/07(목)	03/08(금)	03/11(월)	03/12(화)
KOSPI	1,682.77	2,051.00	1,825.74	2,020.74	2,004.40	2,006.01	2,003.35	1,993.34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7889.1	18373.8	18108.8	18044.5	18338.6
(증감액)	2735.7	1996.5	3611.7	-254.9	484.7	-265.0	-64.3	294.1
(회전율)	52.6	51.5	34.2	36.2	32.7	31.7	34.9	32.0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333.9	355.9	-360.8	91.0	182.4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4099.2	4143.1	4162.3	4188.2	4201.9
미수금	240.2	192.3	187.7	121.3	124.3	126.9	139.5	118.1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3/06(수)	03/07(목)	03/08(금)	03/11(월)	03/12(화)
전체 주식형	91,859	-2,291	-624	-130	-222	-58	-14	-58
(ex. ETF)		-2,761	-624	-148	-143	-63	-20	5
국내 주식형	66,789	-1,462	-496	-117	-218	-10	24	-50
(ex. ETF)		-1,940	-496	-135	-139	-15	18	13
해외 주식형	25,069	-829	-128	-13	-4	-48	-37	-8
(ex. ETF)		-821	-128	-13	-4	-48	-37	-8
주식 혼합형	9,713	-256	-37	-8	-7	-5	-8	-4
채권 혼합형	19,962	663	-6	-369	5	154	20	60
채권형	49,174	1,757	597	-13	87	87	194	-44
MMF	79,200	15,856	2,110	1,010	-1,527	-491	235	11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3/07(목)	03/08(금)	03/11(월)	03/12(화)	03/13(수)
한 국	-132	176	707	-47	-4	-190	-83	7
대 만	1,821	284	1,023	35	138	17	-13	-30
인 도	9,166	928	877	127	251	185	-	-
인도네시아	2,052	302	313	42	-30	16	-	-29
태국	148	232	314	-16	53	8	44	-
남아공	1,158	211	223	21	64	-162	20	-
필리핀	1,133	321	281	188	23	-6	84	-8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2년	03/06(수)	03/07(목)	03/08(금)	03/11(월)	03/12(화)	03/13(수)
회사채 (AA-)	3.29	2.99	3.01	3.01	3.01	2.96	2.96
회사채 (BBB-)	8.80	8.59	8.61	8.61	8.61	8.57	8.57
국고채 (3년)	2.82	2.64	2.66	2.66	2.66	2.61	2.61
국고채 (5년)	2.97	2.75	2.77	2.77	2.78	2.72	2.72
국고채 (10년)	3.16	2.96	2.99	2.99	3.00	2.95	2.96
미 국채 (10년)	1.76	1.94	2.00	2.04	2.06	2.02	-
일 국채 (10년)	0.80	0.65	0.67	0.66	0.67	0.65	-
원/달러	1,070.60	1,082.60	1,087.10	1,090.30	1,094.80	1,095.20	1,097.40
원/엔	1,243.73	1,160.09	1,151.83	1,132.66	1,139.46	1,139.05	1,145.87
엔/달러	86.08	93.32	94.38	96.26	96.08	96.15	95.77
달러/유로	1.32	1.30	1.31	1.30	1.30	1.30	1.31
DDR3 1Gb (1333MHz)	0.67	0.84	0.86	0.86	0.87	0.89	-
DDR3 2Gb (1333MHz)	1.07	1.67	1.70	1.75	1.77	1.78	-
NAND Flash 16Gb (MLC)	1.89	2.02	2.06	2.08	2.13	2.23	-
CRB 지수	295.01	289.84	292.73	294.38	294.73	295.70	-
LME 지수	3,454.5	3,322.5	3,353.8	3,344.9	3,341.9	3,379.6	-
BDI	699	820	834	843	847	865	-
유가 (WTI, 달러/배럴)	91.82	90.45	91.56	91.95	91.79	92.54	-
금 (달러/온스)	1,663.40	1,574.90	1,575.10	1,576.90	1,578.00	1,591.6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

##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303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3월 7일	264.78	264.90	0.14	0.12	0.71	221,800	115,835	-5,095
3월 8일	264.57	265.00	0.12	0.43	0.87	181,724	113,783	-2,052
3월 11일	264.15	264.70	0.06	0.55	0.49	224,856	103,331	-10,452
3월 12일	262.43	262.45	0.04	0.02	0.52	174,219	97,463	-5,868
3월 13일	263.33	262.90	0.04	-0.43	0.25	218,852	76,301	-21,162

###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3월 7일	-3,170	480	2,966	2,281	644	-33	79	0
3월 8일	1,704	-942	-746	-1,452	863	-17	-156	0
3월 11일	1,166	-1,420	118	141	-50	-208	109	-6
3월 12일	-4,719	3,548	1,916	1,554	225	9	105	0
3월 13일	-2,557	629	1,523	366	1,165	20	-29	0
누적포지션	-17,086	17,879	564	-4,335	2,216	1,089	634	970

###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3월 7일	675	588	-88	667	570	-97	9	18	9	5,274	10,227
3월 8일	559	836	277	553	770	217	6	66	60	5,269	10,275
3월 11일	639	896	258	627	838	211	12	58	46	5,221	10,167
3월 12일	681	657	-24	673	624	-49	8	33	25	5,168	10,083
3월 13일	646	675	29	634	655	21	12	2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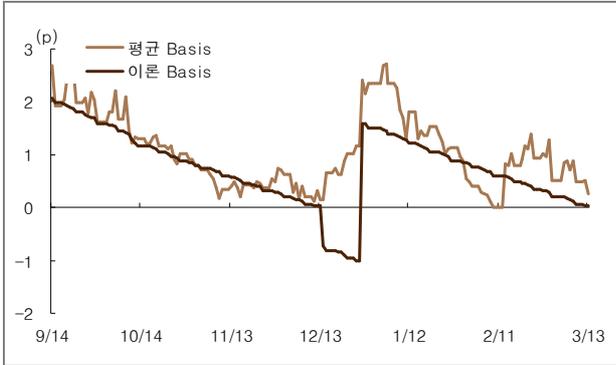
###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 / 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33.34	10,719	30,325	0.01	275.00	12.15	165	-34	67.29
	27.06	-2,267	72,920	0.01	272.50	9.60	799	-86	55.21
	24.05	-3,365	266,764	0.03	270.00	7.15	2,202	-40	46.03
	20.91	6,752	485,139	0.10	267.50	4.70	11,328	-228	35.49
	19.58	6,641	690,056	0.45	265.00	2.56	137,227	52	29.03
	17.01	4,115	445,075	1.42	262.50	1.04	491,255	124	25.95
	0.00	1,631	45,001	3.25	260.00	0.32	587,032	3,214	25.66
	0.00	-1	5,221	5.50	257.50	0.10	363,323	4,661	27.77
	0.00	40	524	7.95	255.00	0.04	201,275	-1,010	31.37
	0.00	-8	121	10.45	252.50	0.02	106,509	-2,349	35.62
	0.00	-10	49	13.00	250.00	0.01	83,911	-6,544	39.45

## ■ 주요 지표

###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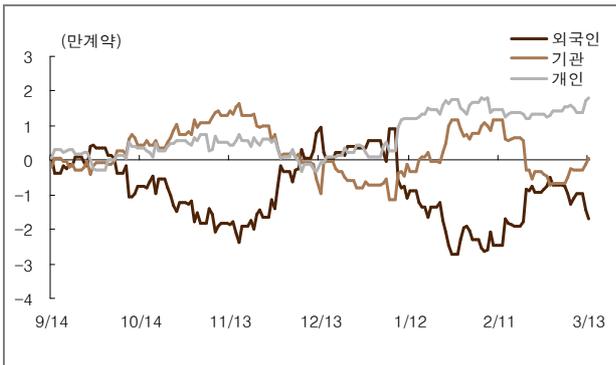
- 평균 Basis: 0.25 (전 거래일 대비 0.27 하락)
- 이론 Basis: 0.04

###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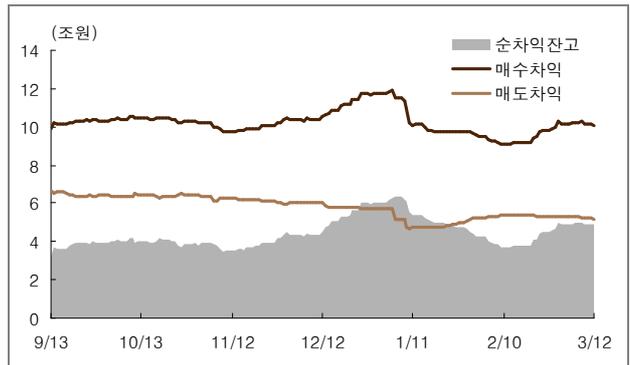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21,162 계약 감소한 76,301 계약
- 선물가격(262.90): 전 거래일 대비 0.45p 상승

###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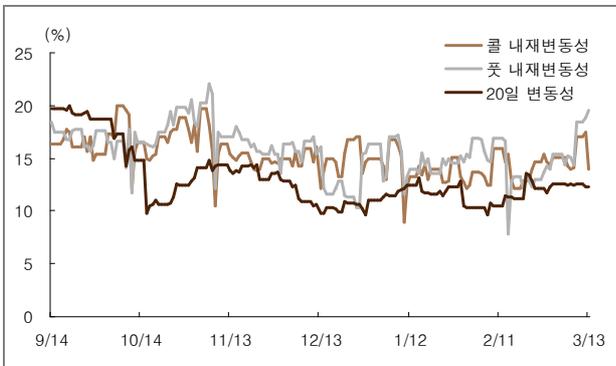
- 외국인: 2,557 계약 순매도
- 기관: 1,523 계약 순매수 / 개인: 629 계약 순매수

### 차익거래 잔고 추이



- 차익거래: 89 억원 순매수
- 비차익거래: 206 억원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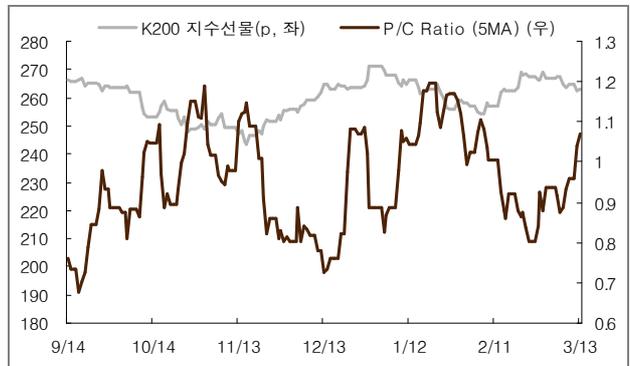
###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4.0% / 풋 19.5%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2.24%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12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07 기록

#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4	5	6	7	8
韓> 2월 소비자 물가지수 YoY (1.4%, 1.6%, 1.5%) 2월 HSBC PMI 제조업 (50.9, n/a, 49.9) 유럽> (3/4-5)유로존,EU재무장관회의 中> (3/3)전국민민정차협상회의 개막 (3/3) 2월 PMI 비제조업 (54.5, n/a, 56.2)	美> 2월 ISM 비제조업 (56.0, 55.0, 55.2) 유럽> 1월 유로권 소매판매 MoM (1.2%, 0.3%, -0.8%) 中> 2월 HSBC PMI 서비스 (52.1, n/a, 54.0)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14.8%, n/a, -3.8%) 2월 ADP 취업자 변동 (19.8만, 17.0만, 19.2만) 연준 베이지북 발간 유럽> 4분기 유로권 GDP QoQ (-0.6%, -0.6%, -0.6%) 4분기 유로권정부지출 QoQ (n/a, n/a, -0.1%)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4.0만, 35.5만, 34.7만) 1월 무역수지 (-\$444억, -\$426억, -\$381억) 소비자신용지수 (\$161억, \$147억, \$157억) 유럽> ECB / BOE 금리 공시 日> BOJ 정책 금리 공시	美> 2월 비농가 고용자수 변동 (n/a, 16.5만, 15.7만) 2월 실업률 (n/a, 7.9%, 7.9%) 中> 2월 무역수지 (n/a, -\$69.5억, \$291.5억) 2월 수출 YoY (21.8%, 8.1%, 25.0%) 2월 수입 YoY (-15.2%, -8.5%, 28.8%) 日> 1월 경상수지 YoY (-19.9, 31%, -199.4%)
11	12	13	14	15
中> (3/9) 2월 소비자 물가지수 YoY (3.2%, 3.0%, 2.0%) (3/9) 2월 생산자 물가지수 YoY (-1.6%, -1.5%, -1.6%) (3/9) 2월 산업생산 YoY (9.9%, 10.6%, 10.0%) (3/9) 2월 소매판매 YoY (12.3%, 15.0%, 14.3%) 2월 신규 위안 대출 (6200억, 7000억, 1조700억) 2월 통화공급 M2 YoY (15.2%, 14.9%, 15.9%) 日> 2월 통화량 M2 YoY (2.9%, 2.7%, 2.7%)  실적발표> 美 디스 스포팅 굿즈	美> 2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90.8, 90.0, 88.9) 日> 2월 소비자자기대지수 (44.3, 43.0, 43.3)  실적발표> 美 코스트코 홀세일 어반 아웃피터스	韓> 2월 수출물가지수 YoY (-5.6%, n/a, -8.1%) 2월 수입물가지수 YoY (-8.6%, n/a, -10.6%) 2월 실업률 (3.5%, 3.2%, 3.2%) 1월 통화공급 M2 YoY (0.5%, n/a, 0.1%)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14.8%) 2월 수입물가지수 YoY (n/a, -0.7%, -1.3%) 2월 소매판매액지수 MoM (n/a, 0.5%, 0.1%) 1월 기업재고 MoM (n/a, 0.5%, 0.1%) 유럽> 1분기 유로권 산업생산 MoM (n/a, -0.1%, 0.7%)	韓> 금통위 금리 결정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5.0만, 34.0만) 2월 생산자 물가지수 YoY (n/a, 1.8%, 1.4%) 2012년 4Q 경상수지 (n/a, -\$1,125억, -\$1,075억) 유럽> (3/14-15) EU 정상 회담 中> 2월 실질 FDI YoY (n/a, -4.8%, -7.3%)  실적발표> 美 에어로포스텔	美> 3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n/a, 10.00, 10.04) 2월 소비자 물가지수 YoY (n/a, 1.9%, 1.6%) 2월 산업생산 MoM (n/a, 0.4%, -0.1%) 3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 (n/a, 78.0, 77.6) 유럽> 2월 유로권 소비자 물가지수 (n/a, 1.8%, 1.8%)
18	19	20	21	22
韓> 2월 백화점 매출 YoY 2월 할인점 매출 YoY 2월 생산자 물가지수 YoY 美> 3월 NAHB 주택시장지수 유럽> 1월 유로권 무역수지 SA	美> 2월 주택착공건수 MoM 2월 건축 허가 MoM 日> BOJ 총재 임기 만료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FOMC 금리 결정 유럽> 3월 유로권 소비자자기대지수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월 주택가격지수 MoM 3월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2월 기존주택매매 MoM 2월 경기선행지수 유럽> 3월 유로권 PMI 제조업 3월 유로권 PMI 비제조업 中> 3월 HSBC 플래시 PMI 제조업	中> 3월 HSBC 플래시 BSI 日> 전국 백화점 판매액 YoY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